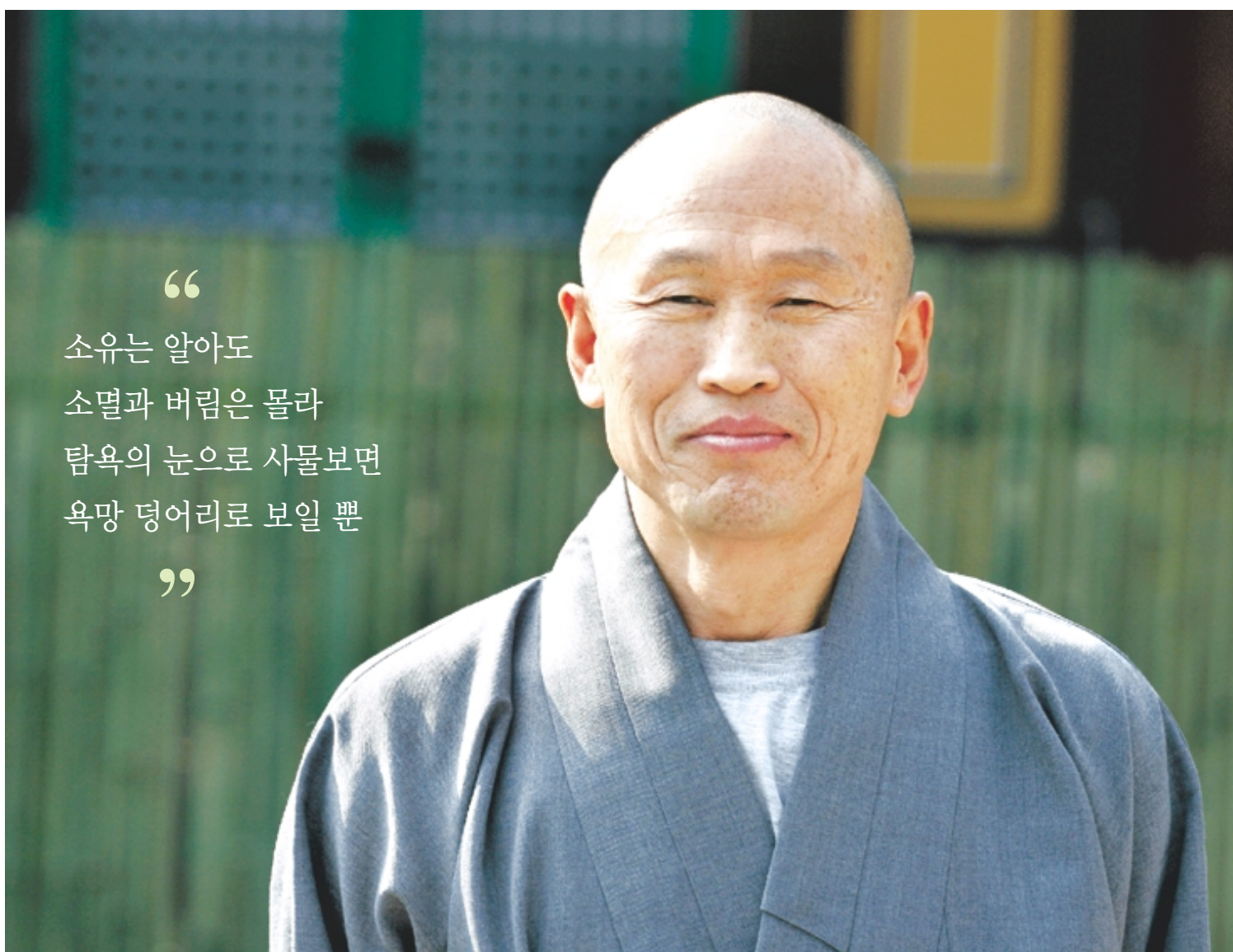


“지금 이 곳이 극락이어야”

인보 스님 (보현사 주지)



인보 스님은 18세에 상원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스님으로 해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20세에 영은사에서 3년 동안 수학하였고 송광사 구산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홍천 수타사에서 12년간 황성 보광사, 강릉 용현사에서 주지를 역임하였다. 2002년부터 강릉 보현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 소유는 알아도 소멸과 버림은 몰라 탐욕의 눈으로 사물보면 욕망 덩어리로 보일 뿐 ”

‘보현성지’라는 팻말을 따라 길을 걸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수십 기의 부도탑들을 만났다. 오랜 세월의 풍상을 말해주듯 부도탑에는 검푸른 이끼가 돌아나 있었다. 웃옷을 여미고 부도탑 앞에서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렸다.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는 금강문을 지나 보현사 대웅전 앞에 설 수 있었다.

인보스님은 며칠 전 ‘2014년 동계올림픽 기원 법회’를 연다는 현수막을 걸다가 발을 헛디뎈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 스님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저승꽃이 피고 몸도 여기저기 뼈격거리는 것이지요” 하면서 땀하러 이 먼 곳까지 공부도 제대로 안한 사람을 찾아 왔느냐고 탄박하신다.

스님은 동진 출가하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선방에 앉을 수가 없었다. 출가의 뜻과는 다르게 가람을 수호한다는 이름 아래 머슴살이만 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면서 스님의 지나온 세월을 말씀해 주신다. 하지만 스님의 처소에 나 온 세월을 말씀해 주신다. 하지만 스님의 처소에 나 온 세월을 말씀해 주신다. 하지만 스님의 처소에 나 온 세월을 말씀해 주신다.

“행자생활 할 때 탄허스님이 <금강경> 강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들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금강경>은 대승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기초 공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첫째는 무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별로 영원할 게 없고 믿을 게 못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처세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무상한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변화에 대한 충격이 크지요. 영원하지 않고 견고한 것은 없다는데서 발심해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부처님 법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렵고 찾으면 찾을수록 어렵기만 합니다. 생활 그 자체가 곧 부처님 법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탐욕도 무상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내입을 알지 못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눈으로 물질을 보기 때문에 탐심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탐심이 있기에 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스님께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었다.

“옛사람들은 심불반조(心佛返照) 간경무의(經無無)이라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전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사물에 투영된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이지 결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깨지는 것을 동양학에서는 음양이라고 하지요. 한 생각

이 깨지면 나도 없고 우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도 있고 우주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소식만 알 뿐, 깨지는 소식은 모릅니다. 한 생각이 72찰나이고 한 찰나에 900생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파장을 쉼 수 있겠어요? 마음은 형상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알음알이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진대 우리는 생성과 소멸을 알고 있지만 소멸과 버림은 모르는 것이다. 내 마음에 탐심이 없다면 사물도 무심하게 보일진대, 탐욕의 눈으로 보면 사물은 이미

“해치는 행위 대신 봉사와 희생으로 되돌리는 것이 부처님 항해기술”



사물이 아니라 소유해야 하는 그 무엇 욕망의 덩어리로 보이는 것이다.

스님 처소의 방문을 열어 제치면 한 폭의 그림처럼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산이 우뚝 솟아 있다. 우뚝 솟은 산이 거침없이 방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다. 스님은 새벽마다 방 앞의 커다란 바위에 앉아 참선을 하신다. 바위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일출을 맞이하는 스님의 정복을 감히 탐낼 수 있으랴.

“상근기는 사자와 같고 하근기는 개와 같다고 하지요.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 가지만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사자처럼 말의 뿌리를 찾아내야 하는데, 사람들은 헛것을 찾아다니기만 합니다. 중생들은 있다고 말하면 있는 것에 집착해 버리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에 집착해 버리는 것이 문제지요. 말은 말일 뿐인데, 말을 떠나서 본체를 봐야 하는데 그것에 꼬달려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니 언제 주인 노릇할까? 객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주인은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인인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아는 것이지요.”

눈만 뜨면 상업적인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미 주인인식을 상실해 버린 지가 오래지 않나 싶다. 음류수 한 병, 과자 하나를 사도 내 의지대로 산다기보다는 기억 속에 주입된 광고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이런 사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진정한 의미까지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 채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어떻게 하면 주인노릇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자신이 지옥에 있는지 극락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극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인노릇 잘 하는 것이지요. 지금 금생을 극락을 가야지, 죽어서 극락 간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경전에는 극락세계가 10만억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하는데 1

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몇 광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겁니까? 그 극락이란 곳은 악업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악업이 없어질 때가 극락이요, 10만억국토를 지나 있다는 것은 한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닦아서 빛과 같이 밝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구의(身口意)로 죄를 짓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란 살생 도둑질 음란이고, 입으로 짓는 죄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탐진치입니다. 이렇게 짓는 죄가 쌓이고 쌓여서 10만억이 되는 것이지요. 10억이 쌓이고 쌓여서 10만억 국토가 되어서 극락으로 가는 길이 막혀 버린 것입니다. 열 가지 악업을 풀어야만 10선업이 됩니다. 저 언덕은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바다가 가로 막혀있습니다. 오욕의 바다, 탐욕의 바다인데, 바다만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모두 빠져 죽는 것이지요. 반야공부를 타야 저 언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라 버렸다. 매트릭스의 세계가 따로 없다. 마음과 행위가 바로 매트릭스의 세상을 지어 내는 것이다.

“고해바다에서 살아내려면 항해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항해기술이란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살생을 방생으로 돌리고 남을 해치는 행위 대신에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되돌리는 것이 항해기술이요.”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린다. 며칠 전에 내린 눈이 포근한 날씨 탓에 밝은 녹두 녹아내리는 것이다. 그동안 지은 악업이 녹아내릴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항해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스님의 귀한 법문을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산길은 마침 석양을 받아 금가루를 뿌린 듯 빛났다.

강릉=문운정(수필가·본지객원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